특별기획 2

범식민지문학 : 브라질에서의 일본어문학

에드워드 맥(Edward Mack)*

Ⅰ. 들어가는 말 : 식민지/콜로니아/식민(植民)

1932년 4월 14일,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발행되는『브라질시보(*Noticiasdo Brasil*)』에「식민문예(植民文藝)단편소설대회」의 첫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식민문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식민지문예란 제국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최근 활발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식민지란 용어의 뜻은, 가와무라 미나토를 인용하면, "할양, 병합, 위탁통치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의 일부가 된 것"으로 제한된다.[1] 확실히 일본 제국은 독립국인 브라질을 통치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브라질에서 시작된 일본어문학을 식민문예로 만드는 것일까? 한편, 이 혼란은 식민이라는 용어의 라틴어원에서 비롯된 근원적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용어의 사용은 문학의 구성원칙들의 중요한 재개념화와, 민족문학 모델의 한계를 암시해 주고 있다.

라틴어 colonia는 Apoikia, emporion, klerouchia 등 여러 그리스어 용어들과 연결되어 왔는데 이들은 이론상으로는 모(母) 도시와 상이한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식민지들을 의미했지만 실제로 항상 정확하게 분류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라틴어원은 영어의 colony와 포르투갈어의 colonia의

* 워싱턴대학 준교수.

1) Kawamura Minato,「Shokuminchi bungaku to wa nani ka」,『*Nan'yô, Karafutono Nihonbungaku*』(Tokyo:ChikumaShobô,1994)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원이고, 또한 이로부터 일본에서 식민(植民)이라는 번역어가 나왔다.[2] 라틴어에서 colonia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형태의 식민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 확장을 뜻했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들어온 독립적 이주민 집단을 뜻했다. 일본에서 단어를 차용할 때 가장 중요했던 (가장 처음 차용한 언어는 아니지만) 영어의 '식민지'라는 단어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광범위했다. 특히 일본에서 단어를 빌려가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그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3] 그 전에는, '식민지'는 개인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는 곳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럴 경우 그 식민지는 속방으로 남았다.[4] 그렇기에 그러한 인간 이주의 형태인 '식민지'는 이민과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식민지'는 이주자의 출신지와 매우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가지는 집단들에 대해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적어도 대중적 용례에서 이주와 식민지화 또는 식민주의에 대비되는 식민화의 구별을 흐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그 단어는 이동된 인구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집단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지시하는데 쓰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무역이 외국을 "직접 통치하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값진 식민지로 만든다"고 한 영국 의회의 1846년의 선언에서 이러한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5]

공식 식민지와 비공식 정착지 사이의 언어적 다의성은 정치적 다의를 반영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이주와 공식적 식민지화의 실제 역사적 과정이 어떻

---

2) William Smith, ed.,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70) 313-17; James Whitley, *The Archaeology of Ancient Gree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24-26; and Ian Worthington, "Demosthenes, *Philippic* 2.20 and Potidaea the *Apoikia*," *Hermes* 128:2, 235-36.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Ôtake Wasaburô's Dictionaries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Brazil," *Dictionaries :The Journal of theDictionary Society of NorthAmerica*31(2010):46-68.

3) 원래 일어 *shokumin*은 1801년 네덜란드어 *Volkplanting*의 차용 번역어로서 처음 쓰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1772년 모도키 요시나가의 『*Orandachikyûzusetsu*』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콜럼버스가 신세계에 도착한 이래 유럽인들의 정착과정의 주요사례를 기술한 책이다. 1867년에는 영어의 "colony"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4) M.I. Finley, "Colonies: An Attempt at a Typology,"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5th Series, Volume 26 (1976): 167-88.

5) Bernard Semmel,*The Rise of Free TradeI mperialis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the Empire of Free Trade, and Imperialism, 1750-1850*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 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피터 듀스는 메이지 시대의 마지막 20년 동안 그 차이가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 이주는 정치적 의미가 거의 없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경제적인 행동으로서의 움직임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이주의 수혜자가 이주국이 아니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은 이주민이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식민지화는 언제나 국가적 목적, 국력 그리고 국익과 연관되었다. 그것은 번영하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세울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국에서 덜 개발된 사회로, 종종 정부의 축복 아래, 혹은 정부의 보호와 장려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통제된 인구 이동을 함축했다. (Duus, 295)[6]

듀스는 다수의 사상가들이 하와이, 북미, 호주에로의 이주를 국가적 견지에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학자이자 정치인인 토고 미노루 (1881-1959)의 의견을 그의 저서인 『일본식민론(日本植民論)』,「민족의 팽창은 반드시 국가의 발전에 있지 않다(民族の膨張は必ずしも国家の発展にあらず)」에서 인용한다.[7]

그에 반해, 아키라 이리예는 일본의 공식 식민 계획과 광범위한 이민 지원간의 중요한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로 그는 일본의 영토 확장 초창기에 이주와 공식적 식민화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이리예에 따르면 "평화적 확장주의(平和的膨張)는 단순히 개개인 일본인의 수동적인 이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적극적인 해외 이주 프로그램과 멀리 떨어진 지역을 일본과 가깝게 묶어놓으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의미한다".[8] 국적의 확장이 국가의 발전에 효과적인지는 논쟁거리이지만 당시의 권력자 일부가 그렇게 생각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에 실제 관련당사자들은 그들의 상황과 공식 식민지의 동포들 사이의 연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브라질에서 식민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역사는 더 복잡하다. 라틴어 colonia

6) Peter Duus, *The Abacusandt 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295.
7) Duus (300)에 의한 번역, 최초의 인용은 Tôgô's의 text. 382페이지에 나타난다.
8) Akira Iriye, *Pacific Estrangement: Japanese and American Expansion, 1897-191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13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포르투갈어 cognates는 더욱더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브라질에서는 식민자, 식민지, 식민화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포르투갈어들에 부여된 의미들이 상당히 다르다. 우선 나라가 큰 만큼 지역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그밖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리오 그란데 도 술, 산타 카타리나, 파라나 주 등에서는 식민지(zona colonial)가 소규모 농장들에 주어진 땅을 의미하며 식민자(colono)는 소규모 농장의 자경자이다. 파나마를 북으로 접하고 있는 산업, 농업으로 중요한 상 파울로주에서는 식민자 (colono)가 1년간 일정 수의 커피나무를 돌보도록 책임을 맡은 농업노동자인데, 그는 콜로니아(colonia)라고 불리는, 주인의 저택 근처에 있는 노동자 마을에 있는 주택에 살며 커피 열매를 가공하는 가공소와 커피콩을 펴 말리는 땅을 쓸 수 있다.[9]

이러한 영어와 포르투갈어의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식민이란 용어가 브라질 내에서의 특수한 용례에도 불구하고 콜로니아(*colonia)*의 번역어로 정착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용어는 대다수의 일본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뉴클레오스 콜로니아(*núcleos coloniais)*-크고, 어느 정도 자율적이고, 반관(半官)적인 민족적 언어적 지역-에 적용될 때 더욱 모호성을 띄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콜로니아(colonia)라는 용어의 번역어로 식민을 사용하는 것은 원어(포르투갈어), 번역어(일어), 그리고 어원적 근원인 라틴어, 그리스어의 복합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동시에 그 복합성의 큰 부분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또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크로노토프간의 번역이라는 행위, 그 자체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식민문예 단편소설'이라는 말속의 식민이라는 용어는 번역에 유래된 것이며, 용어의 내적 다의성 뿐 아니라 그 어원에서 심하게 벗어난 동계 언어 간의 차이까지도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상의 이름이 부정확하며 '이민문예단편소설(移民文芸短編小説)'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 식민지(colonial) 이라는 용어가 그런 텍스트들에 연결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뉘앙스를 통해 사유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주는 이 상(賞)과 그것이 경축하는 문학의 존재를

9) T. Lynn Smith, "Studies of Colonization and Settlement,"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4: 1 (Spring, 1969), 9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한 필요조건이었고, 그 이주가 크게 보아 제국적 팽창과 지배의 힘을 통해 재구성된 세계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Ⅱ. 20세기 일본인의 이민

식민문예라는 이름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식 식민지들과 브라질의 일본 이주민 공동체들이 많은 공통점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앞 절은 일본 정부가 이 두 종류의 이민을 후원한 동기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브라질 정부와 이주민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이익 집단들의 동기 또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브라질 정부로서는 우선적으로 커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화라는 선택권을 결여한 브라질은 일부 엘리트가 주장하는 "표백"과정(*branqueamento*)을 제쳐 놓고 대신 1905년에 '백인'국가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이민 노동자의 원천으로 삼을 만큼 충분히 "문명화"된 국가로 보도록 인종의 위계질서를 재고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다.[10] 일본인 노동이 투여된 첫 작물이 커피라는 것은 이 이주를 장려한 전지구적 힘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포르투갈의 공식 식민지로, 그리고 영국의 간접적 경제 식민지로서, 브라질 경제가 일련의 단작 환금작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역사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11] 브라질의 일본 커뮤니티들은 이러한 비대칭에 기반을 둔 세계 경제 덕분에 존재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비대칭은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간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는 단순한 본국-식민지 관계로 축소될 수 없다. 일본과 브라질은 둘 다 지배적 위상을 갖지 못하면서 중간적 위치에서 세계 경제와 교섭하는 처지에 있었다. 국가로부터 이주를 권장받은 개별 이주자들은 이주지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통제력을 최대화하

10) 1904-05.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Nobuya Tsuchida, *The Japanese in Brazil, 1908-1941*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Angeles, 1978) 23.

11) E. Bradford Burns, *A History of Brazil*, third edition(New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61ff.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들 양국으로부터 이중적으로 착취를 당했다. 일본인 브라질 이주자들의 전통적 이미지는『백성(蒼氓)』에 표현된 이미지와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유래되는데, 그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일부는 일본으로의 성공적 귀환을 꿈꾸나 대다수는 단지 지탱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이라 여겨지는 곳에서 도피할 생각을 하는, 시골 농부의 모습이다.[12] 이러한 묘사는 많은 이들의 현실에 부합하지만, 해외에서 부를 창출한 후 금의환향하려는 욕망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주를 추구한 많은 수의 이주자도 있었고, 유토피아적 사회를 창조할, 또는 대안적이거나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체성을 이룰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간 망명자들도 있었다. 이주민들을 균질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완전한 묘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어쩌면 더욱 흥미로운 것은 힘겹게 투쟁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농민 이주민의 단일한 이미지가 이주민들 자신들이 형성하고 끌어안은 자기 낭만화적 서술일 확률이다.-이는 어쩌면 망명 시인들이 "존엄성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진 조건에 존엄성을 부여하는" 존재라고 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묘사와 일치한다.[13] 그 주장을 잠시 접어두면, 개개 이주자들이 선입견, 긴급 상황, 욕망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것은 분명하다.

이주는 1908년에 시작되어 1941년까지 지속되었고, 전쟁 후에 다시 시작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1884년에 이주가 합법화된 후에 일본 정부는 하와이, 호주, 피지, 과달루페, 캐나다,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와 미국으로의 이주를 (감

12) 영어로 「The Emigrants」라고 번역된 그 이야기는 *The East* 21.4-6(1985)와 22.1(1986)에 나온다. 어떤 번역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 첫 아쿠다가와상을 받은 첫 번째 파트의 번역이고, 두 번째 파트는 1946년 4월과 6월 사이에 출판되었다.. 세 번째 파트는 1946년 7월에 출판되었다.『백성(蒼氓)』은 반문맹상태의 일본농민들이 브라질로 출발하기 전 고베이민사무소에서 수속을 받은 경험 등을 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나츠라는 젊은 일본여인과 그녀의 남동생 마고이치를 둘러싼 이야기로 개인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족단위의 이민만이 가능하여 오나츠는 브라질로 가 성공하기를 꿈꾼 남동생과 함께 가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를 포기한다. 이 이야기는 오나츠와 마고이치의 경험에 주로 집중하고 있지만, 1930년의 런던 네이비 컨퍼런스나 고위공무원의 뇌물사건 등 중요사건을 언급하는 등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3) Edward Said, "Reflections on Exile," *Reflections on Exileand Other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175.
self-romanticization에 대해서는, Stewart Lone, *The Japanese Community in Brazil,1908-1940: Between Samurai and Carnival*(Palgrave Macmillan, 2002)를 참고할 것.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독과 지원을 동시에 하면서) 격려했고 이 지역들은 곧 일본 이주민들의 주된 이주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가 되자 미국, 호주와 캐나다는 일본인들의 이주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07-08년의 악명 높은 신사협정은 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카사토마루'를 타고 온 781명의 브라질 이주민들이 1908년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이주를 제한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고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브라질을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이 1924년에 일본으로부터의 이주를 금지했을 때, 브라질은 일본 제국의 공식 영역 이외의 지역 중에 제일 우선시 되는 이민국이 되었다. 브라질로의 이주는 1933-34년에 가장 활발했는데 그 두 해 동안 매해 23,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주했다. 그러나 그 시기 이후 만주지역이 일본 제국의 이주 사업의 주요 목표가 되면서 브라질로의 이주민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많은 이주민들이 훗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브라질로 떠났지만,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브라질에서의 상황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열악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다.[14] 브라질에 있는 "일본인" (브라질에서 태어난 2세들을 포함하여)의 숫자는 1940년이 되면 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15] 브라질의 일본인 인구는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 거의 절대 다수가 상파울루 지역에 거주했는데, 예를 들면, 1940년 4월 현재 94%의 일본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16] 브라질로의 이주가 크게 급증해서 10년 안에 일본인 수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기 전인 1930년의 수치를 보면, 상파울루 지역의 공동체가 전체 해외 거주 일본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대강 비교해 보자면 그 당시에 하와이, 미국 본토와 브라질에는 각

14) Imin Hachijû Nenshi Hensan Iinkai, ed., *Burajiru Nihon imin 80-nenshi* (SãoPaulo : Burajiru Nihon Bunka Kyôkai, 1991)113. Tsuchida(297)는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5) *80-nenshi* 113.

jussol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브라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브라질시민이 되었다. 많은 가족들과 이민자의 젊음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1920년까지 대략 28,000명의 이민자에게서 약 6000명의 아이들이 출생했다. Tsuchida 196. 1940년 말, 144,523명의 브라질 이주자 중 3,830명이 시민권을 받았다. 104,355명의 아이들이 일본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Tsuchida 298. (일본인에 의해 집계된) 인구통계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했다. 브라질에서 수집한 통계는 그렇지 않았다.

16) 205,850명의 인구 중 193,364명. *80-nenshi* 1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각 100명에서 15만 명 사이의 일본 이주민이 있었고, 만주와 대만은 거의 23만, 그리고 한국에는 50만 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17] 현재까지도 브라질과 미국에 가장 많은 일본 이주민이 살고 있고 일본계 인구는 브라질에 약 150만 명, 미국에 약 120만 명이다.

초창기 계약 이민자들을 기존의 브라질 농장(*fazendas*)으로 보내졌는데, 1940년이 되면 일본 농업 노동력의 70% 이상이 땅을 소유한다. 1908년과 1924년 사이에 3만 5천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이주했고 대부분은 브라질인 소유의 커피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그곳에서 많은 이주민들은 주로 출신현에 따라 나뉘어 함께 지낼 수 있었다.[18] 환경이 척박하고 착취가 심했지만 그래도 신분상승의 가능성은 있었고 많은 이주민들이 10년 안에 지주가 될 수 있었다.[19] 1940년,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 농업 노동자의 70%이상이 지주였다.[20]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 이주민들에게 좀 더 독립적인 공동체를 설립해 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세 가지의 형태를 가졌다. 첫 번째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착지였고, 두 번째는 아마존 지역에 사기업이 만든 정착지였는데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세 번째는 국가 소유였다가 반관반민의 기업연합에 주어진 넓은 땅이었는데 이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21] 많은 일본인들은 세 번째 형식의 정착지를 선호했

17) Louise Young,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314-15.

18) 각 현의 이민자협회를 구성하는 등 등 상당한 부분이 현 레벨에서 이루어졌다. Tsuchida 250. 그 결과 브라질의 많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현과 동질감을 느끼고 실행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현과 연결이 되었다. 나는 이 점을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현과의 동일시가 최소한 국적만큼 강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19)어떤 사람이 4년제 계약농부인 소작인 또는 임대농부가 될 만큼 충분한 자본을 축적하기 전까지는 콜로노로 일했다. 콜로노, 소작인, 임대농부, 이런 신분들은 각각 전자보다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나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그 차이는 Tsuchida 181-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Tsuchida 300.

21) Tsuchida 184-96. 브라질정부에게는 이것이 개간되지 않거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토지를 경작하거나 활용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식민지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 주요재벌에 의해 자본이 공급되었다. Tsuchida 276. 이 식민지를 이루는 모든 땅을 소유한 반관반민의 기업연합은 법적으로 브라질회사였다. 그래서 개별행위는 모두 회사가 집행했고 브라질정부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다. Tsuchida 305. 이런 법적인 소유권은 1941년 전쟁선포와 더불어 완전히 이양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데, 그 곳에서 그들은 독립적인 농부로 지내며 일본어가 통하는 환경에서 기업연합이 운영하는 의료시설과 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다.[22] 기업연합에서 제공하는 좋은 시설과 장려금 덕분에 그 정착지들은 일본에서 오려는 새로운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브라질에 있는 이주민들도 모이게 했다.[23] 그 결과 형성된 것이 주로 상파울루주의 전원지역에 있는 대규모의 인종적, 언어적 고립영토(enclave)들이다.

Ⅲ. 브라질의 일본어 문학

그렇다면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브라질에 존재했던 일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대한 개관이다. 이주민 모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농업 활동에 종사했고 상파울로 도심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살았다. 일본인 이주의 성공은 새로운 수요를 가진 끝없이 팽창하는 인구를 낳았고 이 수요는 기존의 사업체들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었다. 초기 이주기 때부터 브라질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기업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화했다. 이런 사업들은 초기에 음식이나 이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간장, 씨앗, 약, 일본 농기구들을 다루었다. 필수품은 아니지만 인쇄물 같은 것들의 수요도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꽤 높은 정도의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쩌면 직관에 반대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24] 이것은 아마 이주를 하기 위해

22) Tsuchida 253-55 는 바스토스식민지에 세워진 시설로서 도로, 사무소 창고, 신이민자를 위한 기숙사, 호텔. 가게, 차고, 의료센터, 학교, 정미소, 제재소, 벽돌공장, 그리고 마침내 (1934년)발전소와 식민지 중심에 조성된 상업거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3) Tsuchida 254.

24) 33000명의 신이주자(15세 또는 그 이상의)들은 문맹통계에 따르면 1908년에서 1941년 사이 도착시 교육단계는 0.3%는 문맹, 0.2%는 공식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초보적인 읽고 쓰기가능, 74.2%는 초등교육, 22%는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은 2.8%였다. Suzuki Teijirô, ed., *Burajiruno Nihonimin: Shiryô-hen* (Tokyo: Tokyo Daigaku Shuppan-bu,1964), pp.382-83. 교육단계규정에 대해서는 Richard Rubinger, "Who Can't Read and Write? Illiteracy in Meiji Japan," *Monumenta Nipponica* 55:2(2000),pp.163-98,와 P.F.Kornicki, "Literacy Revisited: Some Reflections on Richard Rubinger's Findings," *Monumenta Nipponica*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교육을 받기 힘든 사회 경제적 최하위층은 이주 인구에서 제외되었다.[25] 예를 들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초기 이주민들은 일본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들이었다.[26] 이유가 무엇이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인쇄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체들이 새로 생겼음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이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일본어로 된 신문, 잡지, 책을 계속 구매했다.

다른 상황에 있던 초기 이주민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첫 구독들은 네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책을 얻었다. 그 네 가지 경로로는 그들이 직접 사오거나, 친구에게서 빌리거나, 출판사를 통해 직접 주문하거나, 아니면 상점 (商店, 雜貨屋)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었다.[27] 일어로 된 책을 구하는데 일본이 유일한 공급지는 아니었다. 첫 십년이 지나기 전에 브라질의 첫 번째 일본어 신문이 나왔다. 첫 번째 신문은 1915년에 등장했지만 일 년 안에 망하고 말았다.[28] 곧 두 개의 신문사가 새로 생겼는데, 전전 (prewar) 기간의 주요 신문 역할을 한 그 두 신문은 1916년 초에 생긴 『닛파쿠 신문(日伯新聞)』과 1917년 8월에 창간된 『브라질시보』다.[29]

56:3(2001), pp.381-95를 참고할 것.

25) Tsuchida (137)에 따르면 이주자들의 첫 투자는 최초에는 그것이 일본농부의 3년치 수입에 해당했다고 한다.

26) Tsuchida 179-80.

27) 브라질시보의 광고를 보면 최초 10년 동안 책판매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잡지구독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격(엔표시)은 고정가격으로 1전당 80레알로 교환되었다. 50전 잡지는 4000레알 정도. 1년구독비용은 사전에 지불하는 식으로 했다. 책도 같은 환율로 1엔당 8000레알, 선불d이었다. 책과 잡지는 시보에 주문하여 시보측에서 일본 에이전트에 접촉. 시보가 책과 잡지를 받으면 등기로 보내는 식이었다. 배포자가 모든 우표, 관세, 기타 비용을 전담했다. 고객들은 대리인 (특약서점)이나 출판사로부터 직접 주문도 분명히 가능했다. 이 경우 가격은 20%정도 낮았다. 그러나 관세나 기타 비용은 고객부담인데다 고객은 우편체계내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시보는 공중도덕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카탈로그에 등록되지 않는 책이나 잡지도 주문받았다.

28) The *Nanbeishûhô*, 단순 등사신문

29) 브라질시보와 닛파쿠신문에 대해 알려면 다음을 참조할 것. Kon'no Toshihiko and Fujisaki Yasuo, eds.,*Imin-shiI: Nanbei-hen* (Tokyo: Shinsen-sha, 1994), 149-54 와 Ebihara Hachirô, *Kaigaihôjishinbunzasshi-shi* [1936](Tokyo: Meicho Fukyûkai, 1980), 224-28. 가격비교의 포인트로 1917년 9월 7일 브라질시보의 구독비는 1년에 만레알, 1달에 1000레알, 1주에 300레알이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신문에 책 판매 광고가 실리는 것은 일본인의 이주가 시작된 지 십년이 지나고 나서이다. 초기 광고들 중 하나는 상파울루시에 위치한 잡화점인 기도(木藤)의 광고였다. 이는 1918년 2월에 책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했다.[30] 당연히 기도의 주 사업은 책이 아니라 목공 기구, 약, 중고 자루나 간장 등 이었다. 그러나 그 후 곧 전전 시대 주요 서점의 선구자인 엔도서점(리브라리아 엔도)가 등장했다. 기업가인 엔도 쓰네하치로(遠藤常八郎)는 1917년 초부터 일본 상품들을 상파울루에서 적극적으로 거래했다.[31] 개인 사업가로 활동하던 그는 1920년에 가게를 차렸다.[32] 그 당시 그는 사탕, 약, 벌레 방지 스프레이 등의 다양한 물품을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편지나 공식 문서들을 운반했고 책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 1923년에 그는 그의 회사를 엔도상점이라고 명명했다.[33] 1927년만 해도 그 회사는 씨앗과 같은 다른 상품들을 광고하고 있었지만 1928년이 되면 "서적전문"으로 자기위상을 정립한다.[34] 1932년에 엔도는 회사의 이름을 상점에서 서점이라고 바꾸며 작지만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35] 가장 큰 책 판매처이긴 했지만 엔도서점은 시장에서 결코 유일한 판매자는 아니었다.

그 당시 신문 광고를 보면 일본어 인쇄물들, 특히 책과 잡지들은, 초창기부터 브라질에서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환경에 둘러싸인 이주민들이 비록 소설일지라도 일본에서 온 익숙한 텍스트들을 찾았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새로 도착한 책들을 소개하는 서점들의 광고를 통해 우리는 이주 초기 수십 년 동안 브라질에서 어떤 책들이 구매 가능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36] 물론 이 자료들은 전체 수요의 일부일 뿐이다.[37] 그러나

30) *Burajiru jihô*. 1918년 1월 25일자 광고는 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2월1일자 광고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
31) *Burajiru jihô*, 7 September 1917.
32) *Burajiru jihô*, 13 August 1920.
33) *Burajiru jihô*, 7 September 1923.
34) *Burajiru jihô*, 4 March 1927 and 30 August 1928.
35) *Burajiru jihô*, 19 May 1932. 엔도에서 명칭의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사업 10주년 기념광고에서이다.
36) 책대여, 과월 잡지, 이동도서관이 책 구매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알고 싶으면 다음을 참조할 것; Edward Mack, "Diasporic Markets: Japanese Print and Migration in São Paulo, 1908-1935," *Script & Print: Bulletin of the Bibliographical Societ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29 (2006)163-77.
37) 고객이 특별주문한 책은 광고에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서점들이 독자가 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카탈로그에 있는 책 제목이 1924년에는 15개였는데 1935년에는 거의 400개로 늘었다는 점을 보아 우리는 거래되는 책의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음을 광고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38]

자료를 보면 브라질의 이주민들이 책을 살 때 그들이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작가의 책을 많이 구매했음을 알 수 있다.[39]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하나는 사사키 구니(佐々木邦, 1883-1964)였다. 사사키 구니는 그 자신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며 첫 작품인 『악동일기(いたづら小僧日記)』(1909)를 썼다. 1935년과 1940년 사이에 적어도 20개의 사사키의 작품이 서점 광고에 등장했다.[40] 사사키의 많은 작품을 출판한 고단샤(講談社)는 브라질의 많은 잡지와 책의 공급처였다. 이 출판사는 정기적으로 일본어 신문에 잡지 광고를 내면서 시장을 개척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단샤의 설립자인 노마 세이지(野間清治, 1878-1938)가 쓴 책이 같은 기간에 적어도 15번 이상 등장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41]

사사키 외에, 가장 유명했던 작가들은,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 1885-1974), 기쿠치 간(菊池寬, 1888-1948), 그리고 나오키 산주고(直木三十五, 1891-1934)였다. 이들은 모두 적어도 13번은 등장한다. 정치가이자 소설가였던 쓰루미의 작품들은 소설(『어머니(母)』『아들(子)』『아버지(父)』), 유명한 서양인들(디즈레일

을 것으로 느끼거나 고객이 그것을 요구한 뒤 사지 않은 책이다. 이런 책들의 복수의 카피는 아마 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책제목이 한 광고에서 그 다음광고로 반복되지는 않았다. 이는 활발한 판매회전, 반복광고의 비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38) 1924.6.13자 브라질시보와 1935.12.18자 닛파쿠신문의 Endô Shôten (Shoten). 반 페이지 또는 전면광고는 1935-40년대에 일반적이 되었다.

39) 이 결론은 1924-40년의 10개 광고에 나타난 1200개의 책 제목에서 분석 도출한 것이다. 13 June 1924 (*Burajiirujihô*), 19 December 1924(*Burajiirujihô*), 29 August 1934(*Burajiirujihô*), 18 December 1935(*Nippakushinbun*), 21 August 1938(*Burajiirujihô*), 12 August 1939(*Burajiirujihô*), 19 August 1939(*Burajiirujihô*), 16 December 1939(*Burajiirujihô*), 1 February 1940(*Burajiirujihô*), 9 July 1940(*Burajiirujihô*).

40) *Kushinnogakuyû*(苦心の学友, March 1930, Kôdansha ; 1935.12.18 닛파쿠신문 11만7천) *Guteikenkei*(愚弟賢兄, March 1929, Kôdansha ; 1940.2.1 브라질시보 13만5천) *Chinitsumeatoonokosumono*(地に爪跡を残すもの, February 1934, Kôdansha ; 1935.12.18 닛파쿠신문 16만2천)등을 포함하여 사사키는 여자와 젊은이를 위한 코미디픽션의 저자로 유명하다.

41) 그의 책은 15번에 걸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9개의 제목만 남아있다. 이 책들은 한 개만 빼고 저렴하고(대부분 3-5만) 1935.12.18(닛파쿠신문, 2만), 1940.2.1과 7.9(브라질시보, 3만)에 세 번 등장한 *Sekenzatsuwa*(世間雑話, November 1935, Kôdansha)를 포함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리, 나폴레옹, 바이런, 비스마르크에 대한 책들, 그리고 일본의 팽창에 대한 논문 『팽창의 일본(膨張の日本)』을 포함해 가장 다양했다. 기쿠치의 작품들은 1924년부터 1940년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났다.[42] 반면에, 나오키의 작품들은 그의 죽음 (1934년 2월 24일) 직후에 몰려 있다.[43] 이는 예측 가능한 책들만 광고에 나타난다는 말은 아니다. 한 가지 예는 러시아계 일본인 작가인 오이즈미 고쿠세키(大泉黒石, 1894-1957) 의 작품들인데, 1924년부터 보인다.[44]

적어도 1919년경부터는 『태양(太陽)』, 『중앙공론(中央公論)』, 『와세다문학(早稲田文学)』, 『신소설(新小説)』, 『문예클럽(文藝倶楽部)』을 포함한 다수의 일본 잡지들이 들어왔다.[45] 두 나라가 약 50일이 걸리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들은 발간되고 오래지 않아 브라질에 도착했다.[46] 책들과 다르게, 우리는 독자들의 수와 성향에 대한 대략의 상황을 알고 있다. 일본인 브라질이민자 총 수가 170,000명을 뛰어넘은 1935년에, 일본어 잡지 시장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신문기사가 하나 보인다.[47] 그 기사에 따르면, 1935년 8월 브라질의 일본어 잡지의 수입이 처음으로 10,000권을 능가했다.[48] 가장 많이 읽힌 것은 3500부의 『킹(キング)』(처음으로 백만 부 이상 유통된 일본잡지) 였다. 그 다음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잡지 중 하나였던 『주부의 친구(主婦の友)』로 1,200부였다.[49] 반면 그 달에 (일본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

42) 1924-40년 사이 그의 작품은 13작품에 13번 등장한다. 그 첫 번째의 것은 *Dokunohana*(毒の華, Shun'yôdô, 1921)로 1924.12.19 브라질시보에 15,000레알로 등장한다. *Keikichimonogatari*(啓吉物語, Genbunsha, 1924)은 같은 광고에 17,000레알로 등장했다.

43) 1934-35 사이 나오키는 11권의 책으로 13번 등장했다. 1935. 12.18자의 닛파쿠신문의 한 광고에는 그의 책 9권이 실려 있다. 이 책들은 원래 개조사에서 출판된 것이다. (相馬大作, October 1934; 大阪物語, July 1934; 日本の戦慄, August 1934; 明暗三世相, September 1932; 源九郎義経, April-October, 1933, 光、罪と共に, January 1933; 楠木正成, November 1932; 青春行状記, November 1931, 荒木又右衛門, July 1930).

44) Ôizumi Kokusei's *Rôshisôsaku*(老子：創作, Shinkôsha, June 1922) 는 1924.12.19 브라질시보에 18,500레알로 광고되었다.

45) 1919.12.5일자 브라질시보의 Segi Shôten광고. 잡지 『태양』은 2,500레알, 『중앙공론』은 3,500레알, 『와세다문학』 3,600레알, 『신소설』 2,300레알, 『문예클럽』 2,300레알 이었다.

46) Tsuchida 133.

47) *Nippaku shinbun* 18 September 1935.

48) 상파울로 중앙우체국 외서과의 1935년 8월 조사에 따르면 대략 만 권정도 수입되었다, 권당 1,000레알 정도 세금이 부과되었다.

49) 다음으로 인기 있는 잡지로 『히노데』, 『후지』, 『Kô*dankurabu*』가 각 각 450권 정도였다. 어린이 잡지 『소년』, 『소녀』, 『*Yônenkurabu*』등은 300-400권 정도였다. 『문예춘추』(100),『개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개조(改造)』는 단 80부, 그리고 『중앙공론』은 70부만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매체는 신문들이다.

관련된 시장을 살펴보면, 히비 요시타카(日比嘉高)는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들이 1913년경부터 일본제국 도처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종류의 신문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그의 광고 분석을 통해 주장했다.[50] 구독만 제공하는 이러한 광고들은 신문을 파는 서점들이 도쿄도(東京堂)와 같은 거대한 분배 회사들과 연계되어 활동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을 듯하다. 위에 언급한, 잡지에 관련된 1919년 이후 광고들이 그것을 시사한다.

도쿄중심의 인쇄 자본에, 이러한 이주 공동체들은 풍부한 신시장, 즉 그들 고향의 문화적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가졌다고 생각되었던 관객을 제공했다. 특히 1930년대부터, 도쿄중심의 출판사와 브라질중심의 소매업자들이 이러한 소비자들을 향한 엄청난 신문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출판사들과 책 판매업자들은 많은 이주민들이 공유하는 두려움 즉, 뒤쳐진다는 느낌, 불충분한 애국심, 그리고 온전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질까 하는 두려움을 다이아스포라적 삶에서 오는 소외감의 해결책으로 자신들의 상품을 파는 데 이용할 수 있음을 곧 알아차렸다.[51]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물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약품과 인쇄물 광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일본의 상황을 따라갔다.

이 정보가 도쿄로부터 충분한 인쇄물이 공급이 가능했다는 점은 입증하지만 아직도 독자의 양을 밝히는데 실패한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위에 언급한 잡지 자료에 더하여 독서 습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자료들이 존재한다. 1939년에 『닛파쿠신문』을 발행하는 출판사가 바우루 지방, 상파울로의 주요 철로(북서 그리고 파울리스타)를 따라 위치한 약 11,500 가구의 독서 습관 조사를 포함한 연감을 발행했다. 그 가구들은, 그 지역이 상 파울루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

(80), 『중앙공론』(70)과 같이 수준 높은 잡지의 수량은 많지 않았다.

50) 『일미신문』1913.11.12일자 『Goshadô』 광고에서 추론한 것이다. 이 리스트들은 한국, 만주, 대만신문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 Hibi Yoshitaka, “Nikkei Amerika imin issei no shinbun to bungaku,” *Nihonbungaku* 53:11(November 2004), 23-34.

51) 참고 ; Mack, “Diasporic Markets.” 이 논문은, 상당부분이 상업용은 아니었지만 브라질에서 일어난 많은 출판관계벤처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마 배타적으로 농경에 종사하는 촌락지역의 가구들이었을 것이다. 그 조사에 따르면 그 가구들 중 1,078가구는 아동 잡지를 구입했고, 1,908가구는 여성 잡지를 구입했으며, 5,967가구는 남성 잡지를 구입했고, 10,154 가구는 신문을 구매했다고 밝히고 있다.[52] 즉, 거의 모든 가구가 신문을 구입했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그러나 일본서 들어온 신문을 읽는 가정은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읽은 신문은 거의 대부분 브라질에서 출판되는 것들이었다.

Ⅳ. 일본어 신문들에 연재된 소설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두 개의 신문사, 『닛파쿠신문』과 『브라질시보』가 시장을 제패했다. 일본에서 발간된 신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재소설은 브라질에서 간행되는 일본어 신문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특히 정기적 독자층을 양성하는 데 중요했다. 사실 이러한 소설들은, 정기 인쇄물의 소비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에, 그리고 그 결과 신문을 위한 안정적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모든 대표 신문들은 어떠한 형태이든 문학을 포함했다. 특히 『브라질시보』는 상당한 지면을 소설에 할애했다.[53] 다수의 발행물들이 두 가지 다른 연재소설들을 실었는데, 하나는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과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은 보통 일본에서 출판된 이른바 "유명"역사소설이었다. 초기 소설 중 하나인 『구메노헤이나이(粂平内)』는 1921년 1월 28일자로 마무리 될 때까지 이 년 이상 연재가 되었고, 연재횟수는 120회에 달했다. 에도시대 초기의 전설적 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구메노헤이나이』는 규슈(九州)출신의 낭인에 대해 서술한 작품이다. 그는 많은 이들을 살해한 후 그들

52) 어린이잡지 부문에서 『소녀클럽』과 『소년클럽』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시보의 『*Kodomo no sono*』가 뒤를 이었다. 여성지에서는 『부인클럽』이 1위였고 다음이 『주부의 친구』였다. 남성잡지로는 『*Kingu*』 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고단샤의 많은 다른 잡지가 뒤를 이었다. 신문 부문에서는 『닛파쿠』가 1위. 『세이슈신보』, 『브라질시보』, 『니혼』이 뒤를 이었다.

53)비록 시가 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사회기능상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지만 나는 이 논문에서 오직 산문만 다루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아사쿠사(浅草)에서 스님이 된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일본영화의 아버지"라 불린 마키노 쇼죠(牧野省三, 1878-1929)에 의해 1914년에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다. 그 신문 연재본은 1912년 노바나 산진(野花散人, 또는 野花山人) 에 발간된, 지금은 매우 보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널리 구할 수 있었던 다치카와문고(立川文庫)를 바탕으로 한 작품일 확률이 높다.[54]

1921년 2월 4일에 시작해서 적어도 그 후 4년 동안 지속된-1924년 12월 26일까지 총 201회가 연재된-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1860-1926)의 『오이시 구라노스케(大石内蔵之助)』가 그 뒤를 이었다. 이것은 『추신구라(忠臣蔵)』에 나오는 47인의 무사의 대표인 오이시에 대한 내용이다. 나카라이버전은 하쿠아이칸(博愛館)에 의해 동경에서 1916년에 출판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오이시 구라노스케』가 또한 1914년에 다치카와문고시리즈의 23번째 책으로도 등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책에서는 셋카 산진(雪花散人)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다. 어떤 판본이 그 책의 원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다치카와문고판의 인기로 보아 초기 대량생산된 책이 세계의 절반을 돌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만은 않다. 아직 그 당시의 텍스트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과 다른 연재물들에 대해 분명한 사실은 신문들이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간에 많은 경우 일본에서의 문학작품을 재판했다는 점이다.[55]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연재소설들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은 원래 일본에서 출판된 작품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포르투갈 문학과 연계되어 있었다. 포르투갈문학들이 번역되어 『노예의 딸(奴隷の娘)』-베르나르도 기마랑이스의 『*A Escrava Isaura*』(1875)의 번역/번안이 스기야마 호카게(杉山帆影)에 의해 게재되었는데, 연재는 1922년 1월 19일에 시작되어 적어도 1923년 11월까지 지속되었다. 번역물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문학에 대한 많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1927년에는 (적어도) 7부작, 1929년에는 3부작 그리고

54) 이것은 명백히 일본의 오직 한 도서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Baika Women's University in Osaka.

55) 나는 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예외를 찾았다. 1934.3.10, 야나기 소메노스케(柳染之介)의 『가이자카의 불가사의(甲斐坂の怪)』를 고단샤가 시리즈물화했다. 아마도 이것을 그 지역 작가가 신문용으로 편집했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37년에는 3부작 기사가 나왔다. 게다가 1929년 7월 18일에는 포르투갈의 교수가 당대 일본 문학 여섯 편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하겠다는 의도를 설명하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기쿠치 간(菊池寛,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그리고 오카모토 기도(岡本綺堂)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재소설들로 채워진 신문지면의 경계는 대체로 지형적 요소 보다는 언어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번역물과 평론의 지면 구성을 참조하면, 신문을 만드는 주체들이 언어의 경계를 넘어 두 개의 다른 언어를 동일한 '문화권'으로 산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출판된,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브라질에 있는 일본인들이 쓴 것이었다. 최소한 1922년부터 『브라질시보』는 신문 독자를 상대로 "브라질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삶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56] 그러한 이야기들은 『브라질시보』지면에 바로 등장했다. 이 신문에 처음 실렸던 (공동체 전체로 봐서도 처음 등장했던) 소설들 중 하나는 1923년 5월 18일에 연재가 시작된 사카이다 닌겐(坂井田人間), 또는 난슈(南舟)의 『미친 백작(狂伯爵, The Mad Count)』이었다.[57] 아직 재판되지는 않은 다수의 다른 작품들도 그 후 수 년 동안 신문이나 『농업브라질(農業のブラジル)』과 같은 지역잡지에 나타났다.[58]

Ⅴ. 1932년의 식민문예 단편소설대회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32년에 『브라질시보』사

56) 동포라는 용어는 일본인동료라는 뜻이며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좀 더 문자 그대로(같은 자궁이라는) 해석했다.

57) Burajiru Nihon Imin 70-nenshi Hensan Iinkai, eds., *Burajiru Nihon imin 70- nenshi*(São Paulo: Sociedade Brasileira de Cultura Japonesa, 1980), 252, and Maeyama Takashi," Kaisetsu: Iminbungaku kara mainoritii bungakue" in ed. Koronia Bungakukai, *Koronia shôsetsu senshû*, vol. 1(São Paulo: Koronia Bungakukai, 1975), 312-13, and San Pauro Jinmon Kagaku Kenkyûjo, ed., *Burajiru Nihon imin Nikkei shakai-shi nenpyô* (São Paulo: Centro de Estudos Nipo-Brasileiros, 1996) 51.

58) *70-nenshi* 252. 1924년 시작된 『농업의 친구』가 1926년 4월『농업 브라질』로 개명했다. *Nenpyô* 1996, 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식민문예단편소설대회」를 시작했다.[59] 같은 해 1월부터 신문에는 대회의 개최를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60] 1932년 4월 14일 자 신문에는 세 명의 수상자가 소개되었는데, 1등은 「도박농의 시대 (賭博農時代)」, 2등은 「어느 개척자의 죽음(或る開拓者の死)」그리고 3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見果てぬ夢)」이었다.[61]

2등과 3등 수상작은 전형적인 자연주의 문체로 쓰인 소설이었다. 니시오카 구니오(西岡國雄, 필명; 다나베 시게유키(田辺重之))가 쓴 「어느 개척자의 죽음(或る開拓者の死)」은 산업과 경제를 통해 식민지의 꿈을 이루고 부유한 지주이자 그가 속한 일본인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작은 남자 가네코 다이스케(金子大助)의 이야기이다.[62] 꿈을 이룬 그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금의환향[63]하기를 꿈꾼다. 일본으로의 성공적인 귀향을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나지만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 이야기는 공동묘지에 '일본어' 로 "K식민지의 초기 개척자 가네코 다이스케 여기에 잠들다" 라고 쓰인 새로운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끝이 난다.[64] 이는 식민지 이주자들의 비동화성뿐만 아니라 언어와 사람의 타자성(alterity)을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 대부분이 평범한 이주자의 꿈이 이상적으로 실현됨을 보여주지만, 제목에서 분명히 암시하듯이 결론은 그 꿈이 결국 환상에 불가함을 드러낸다.

아사미 데츠노스케(淺見哲之助)가 쓴 「이루어질 수 없는 꿈(見果てぬ夢)」은 사진만으로 결혼하게 된 어린 신부 시즈코(静子)가 산토스항에 도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테마, 설정, 시간, 공간 등 이야기 내용이 다른 것보다 한정이 된 작품이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외국으로 떠나는 배에서 만난 젊고 잘생기고 자상한 구니오(邦雄)를 떠나 결혼상대인 늙어 보이고 지저분한 사토시(佐登志)를 만나며 겪는 절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녀가 문화와 세련됨, 즉 문명을 의미

59) 이 상은 1932-1937년 사이에 4차례 수여되었다.
60) *Burajiru jihô* 21 January 1932.
61) 첫 번째 두 작품은 콜로니아 문학회에서 재출간되었다.
Koronia shôsetsu senshû [*KSS*], vol. 1(SãoPaulo: Koronia Bungakukai, 1975).
62) 다이스케가 굶주린 가족을 위해 음식을 구걸하는 바히안을 비난하면서 아프리카혈통의 브라질사람을 가장 경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젊은 일본인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63) *KSS* 1:23.
64) *KSS* 1:2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는 구니오를 항구에서 떠나보낸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고향인 일본을 떠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그녀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노동에 찌들고 지친 사토시-그의 니코틴 착색이 된 고르지 못한 이는, 현재의 그를 만들어낸 어려운 삶의 육체적 발현의 일부분일 뿐이다-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소노베 다케오(園部武夫)가 쓴 『도박농 시대(賭博農時代)』는 다른 작품들과는 형식이 좀 다르다. 이 글은 다른 두 글보다 훨씬 실험적이어서 앞서 말한 관습적인 글들보다는 거의 동시대적 글쓰기인 신감각파에 더 가깝다. 이는 일본 혼혈 매춘부 하나오카 루리코(花岡ルリ子)와 부유한 토마토농부인 오무라(大村)간의 이야기이다. 소설 속에서 루리코는 오무라와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젊은 이주민을 떠날 준비를 한다. 한편 오무라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인 자신의 일꾼들을 착취하고, 과도한 농약-그 결과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적어도 일꾼들의 눈에는 유해한 토마토를 생산하는-을 사용하여 부를 축적한다. 결국 오무라의 농장은 그에게 원한을 가진 상인 구로세(黒瀬)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다. 구로세는 자신의 복수가 불러일으킬 가난한 일본 농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이야기 자체보다는 내가 '텍스트적 정체성(textual identity)'이라 명명하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텍스트적 정체성'이란 어느 한 텍스트가 위치해 있는 담론과, 결과적으로는 그 텍스트들에 귀속되는 텍스트들의 상호관계성을 말한다. 그런 담론 중 하나가 역사를 초월한 '일본 문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일본 문학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가 <사위일체(四位一体)>라 부른 (그리고 그는 여기서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를 따른다)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위일체>는 그러한 담론들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용어는, 각각의 요소를 연결하는 순환적인 반복을 통해 확립된 자명한 통합체를 형성하는, 국가(일본), 국민(일본인), 문화 (일본문화), 그리고 언어(일본어)의 모호한 (그리고 자기 강화적인) '결합'을 가리킨다.[65] 브라질의 일본어 문학은, 민족, 언어, 문화라 추정되는 것 모두가 '일본'이

65) Komori 1998, 5-18. <사위일체>라는 번역은 2007년 11월 프린스턴대학의 2007정례일본문학연구모임에서 Christopher D. Scott에 의해 "Queer/Nation: From 'Nihon bungaku' to 'Nihongo bungaku'" 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라 가정된 경계를 넘어 자기 충족적인 혼합물을 분열시키면서, <사위일체>를 변형시킨다.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언어의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것은 덜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겉보기에 안정적인 일본어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홉 장짜리의 「도박농시대」는 최소한 26개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지명과 이야기 안에 일본어 주석이 달린 몇 몇의 단어를 제외한 수이다. 「어느 개척자의 죽음」은 주석이 달리지 않은 포르투갈어 (혹은 스페인어) 단어를 적어도 40개 이상 사용한다. 그에 반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은 오직 하나, 방코(バンコ), 혹은 벤치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였다.[66] 아마도 이 단어는 현지어에서 주요 용어들을 익힌 이주민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대화에 다시 쓰이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단어들의 전문적인 어휘는 브라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했고 이는 오늘날 콜로니아어라고 불린다.[67] 이에 따른 언어적 불가해성은 당시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위에 언급된 글들이 최근 브라질 내의 수요를 위해 재출판 되었을 때 추가적인 용어 해설이 책에 첨부되었다.[68] 어떤 지점에서부터 "일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69] 외

66) 방코(*banco*)란 용어는 포르투갈어의 대부라는 단어로 일본에 들어왔다. 그것이 에도초기의 차용인지 또는 이민이후의 차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이 용어는 벤치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닛코쿠제2판에 출현하는데 1928, 9년의 용례가 유일한 사례이다. (그러므로 사전의 관례에 따라 최초에 쓰인 용례로 알려져 있다) : 하야시 후미코의 『放浪記』. 그러나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나는 최소한 2명의 작가가 동시대에 이것을 썼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타하라 하쿠슈는 1911년, 『水郷柳河』에서 로마자로 이 단어를 썼고, 유메노큐사쿠는 1935년 『도구라 마구라』에서 썼다. 앞의 작품은 후쿠오카의 야나가와에서, 다음 작품은 규슈사투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그것은 예전에 유럽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이것은 이민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규슈사투리가 표준일본어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것은 추측일 뿐이다.

67) 콜로니아어로 알려진 이 특별한 단어 또는 포르투갈어에서 온 신조어가 식민지에서 형성되었다.
Santô Isao, "Burajiru Nikkei shakai ni okeru konsei Nihongo 'Koronia-go' no imi" *Ôsaka Jôshi Daigaku kiyô* 56 (2005) 71-81.

68) 대부분 포르투갈어에서 온 83개의 단어는 kss 콜렉션에 포함된 27개의 작품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상파울로에서 출판된 단어해설을 포함한 이 콜렉션은 전후 농업세계(일본)에서 브라질로 옮겨온 일본인들의 거리감들을 설명하고 있다.

69)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귀착한다. "다이스케는 작년 그곳에서 이탈리안 콜로노가 핫카를 빼돌려 뒤쫓아 갔을 때의 일을 생각해냈다(大助は去年そこで、イタリアーノのコロノ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래어의 사용은 일본에서도 흔한 일이고 외래어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의 문학으로서 가지는 대중적 접근성을 고려해 보면 외래어의 빈도와 상대적 모호함이 이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문 외적인 용어 해설이 없는 이러한 글들은 아주 적은 독자층만을 위한 언어적 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고바야시 요이치가 말했듯이, 다중언어 문학인 미즈무라 미나에(水村美苗)의 사소설 「왼쪽에서 오른쪽」이 일본어를, 많은 독자들이 이해한다고 추정되는 언어(영어)와 결합시키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글들은–적어도 우선은, 그리고 용어 해설이 부재할 경우에는–도쿄의 문학의 중심에 쉽게 동화될 수 없다.[70]

'일본문학' 혹은 '근대 일본 문학'과 이러한 상황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일단 제쳐두고, 이러한 텍스트들이 어떠한 담론으로 흡수되었나에 관해 생각해보자. 2차세계대전 이전의 브라질에 있던 독자층의 대부분은, 국적에 의해 중층결정(overdetermine) 되었지만 제국의 소유지의 실재에 의해 복잡해진, 특정한 문화차별주의적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글에 '근대 일본 문학'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당연시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식민문예단편소설'이라고 불리는 대회의 이름은 어떠한가? 우승자 소개와 함께 나오는 선발위원회의 설명을 참조하면, 신문은 식민지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에 우선권을 주었다고 강조했다.[71] 기사에 따르면 선발위원회는 "오늘날 브라질에 있는 일본인 사회의 상황이 일본에서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브라질의 일본인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문예"–식민문예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72]

ファッカを引き抜いて追いかけた時のことを想い出した。)." 또는 "이번에 돌아가면 콜로노는 바이아노로만 해야겠다(今度、帰ったら、コロノはバイアーノばかりにしてやろう)."

70) Komori 1998, 295 and 308–10.

71) 가장 자주 제시된 주제는 젊은 사랑이다. 심사자들은 대개 『금색야차』의 기본적인 서술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작품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비록 사랑이 두 번째 테마이긴 했어도 식민지살이의 곤궁이 선호되었다. 그리고 이 곤궁함에 대한 묘사들은 서술로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으면 너무 지나칠 수 있었다. 선정위원회는 식민지의 삶을 정확하게 반영한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그것은 지나치게 세련되거나 아름답지 않았다.

72) *Burajiru jihô* 14 April 193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Ⅵ. 식민문예에 대한 메타 담론

이 텍스트들을 식민문예로 여기는 전례가 있다. 1932년도의 상(賞)은 식민문예 또는 식민지문예에 대한 더 큰 담론의 부분이었다. 이 담론은 브라질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또한 일본 그리고 일본의 다른 식민지들에서 비슷한 시기에 편성되었다.[73] 수상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1929년부터 신문지상에 나타난 브라질에서 쓰인 에세이들의 초점과 맞았다. 이는 식민자(植民者)과 이민자(移民者)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그 공동체 특유의 감정으로부터 유래한 문학을 필요로 했다.[74]

1931년에는 작가 기타 난세이(北南青)가 브라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의 동포에게 고국에만 연연하지 말고 식민지에서의 삶에 기원을 둔 문학을 쓰기를 애원했다.[75] 그 이후 난세이는 세 개의 기사를 통해 또 다른 텍스트적 정체성인 농민문학을 발달시켰다.[76] 그의 농민문학에 대한 개념이 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안 문학과 닮았지만 그 초점은 달랐다. 그는 문학이 식민지에 사는 이들의 삶과, 즉 주권국의 통치하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으로 남아있는 개인들의 특수한 존재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동화할 수 없

---

73) Maeyama 1975, 314.
"Shokumin bungaku e no dansô" (1929) by Harada, "Bungei ni tsuite no heibon naru kansô" (1931) and "Nômin bungaku no koto" (1931) by Kita Nansei; "Shokumin bungaku" (1932) by Shôken (小剣); "Shokuminchi bungaku no kakuritsu" (1934) by Sugi Takeo; "Shokumin bungaku no ideorogii" (1937) and "Bungei jihyô" (1937) by Ikeda Jûji.
마에야마는 다른 논문에서 "Shokumin bungaku ni tsuite" (1930) by Imai Hakuô 에 대해 언급하지만 나는 본 일이 없다. 미국 내에서의 다른 담론에 대해 알고 싶다면 Mack, "Seattle's Little Tokyo: *Bundan* Fiction and the Japanese Diaspora," forthcoming in Dennis Washburn and James Dorsey, eds., *Reading Material: The Production of Narratives, Genres, and Literary Identities* (West Lafayette, IN: Association forJ apanese Literary Studies, 2006). 도쿄문단에서의 이 개념에 대한 토론은 다음을 참고할 것. Mack, "Accounting for Taste: The Creation of the Akutagawa and Naoki Prizes for Literatu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4:2(December 2004), 318-23.

74) Harada, "Shokumin bungaku e no dansô," *Burajirujihô* 25 July 1929.

75) Kita Nansei, "Bungei ni tsuite no heibon naru kansô," *Burajirujihô*10September1931.

76) Kita Nansei, "Nômin bungaku no koto," *Burajirujihô* 20 November, 24 November, and 27 November 193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국민' 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사회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문학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도록 강압한다. 그것이 어떤 문학일지는 불분명하지만, 난세이는 일본 문단에서 유행하는 부패, 방종, 그리고 자기기만에 대한 괴상한 이야기들은 아닐 것이라고 여겼다.

그 다음해인 1932년에 나타난 기사는 식민지와 관련된 용어의 유연성과, 브라질의 민족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 차별화 되고 있다는 근저의 자각을 보여준다.[77] 이 기사에서 필자는 브라질에 있는 공동체를 과거의 식민지로부터 차별화하려 했다. 예컨대 의식적으로 브라질에 있는 동포들의 사회가 '엄밀한 의미로는 식민지가 아니지만', 그것의 특별한 상황들이 브라질에 있는 일본 사회가 해마다 '모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더 발달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써두었다. 이 기사의 필자는 새로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시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문인이자 비평가인 스기 다케오(杉武夫)는 1934년에 이 논쟁에 합류했다.[78] 「식민지 문학의 확립(植民地文学の確立)」이라는 제목 하에 쓰인 연재 기사에서, 스기는 일본에서 온 문학의 이상들이 아닌 식민지의 현실에 확고히 기반을 둔 문학을 주창한다.[79]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온 문학 -그리고 그것을 흉내 내는 그들의 문학-은 아마도 '어리석은 자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80] 그는 문학에 대한 수요가 그 공동체에 있어서 문학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지만, 모두가 그 퇴폐적 성격에 끌려 일본에서 온 문학을 선호하는 점에 대해 통탄하다. 식민지 주민들의 욕망, 즉 브라질과 식민지의 분위기에서 탄생한 감정들은 그 지역에 의해 아직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스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달과 별에 대한 찬양은 돈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는 진정한 식민지문학은 감상에 빠지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스기가 이러한 문학이 한국에서는 나타나

77) Shôken, "Shokumin bungaku," *Burajirujihô* 28 January 1932.
78) 마에야마에 따르면 1937년『이데올로기의 문제』에서 이 논의를 했다는 데 나는 찾지 못했다. Maeyama 1975, 314.
79) Sugi Takeo, "Shokuminchi bungaku no kakuritsu," *Burajirujihô* 10 January, 17 January, 24 January and 31 January 1934.
80) *Burajiru jihô* 10 January 1934. 스기는 "이익을 위해 딸을 흑인에게 팔아넘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인 콜로니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존중이 없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 있는 반면 브라질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탄식한 것을 볼 때, 브라질을 일본의 다른 공식적인 식민지와 동일시한 사실이 분명하다.

1937년에 이케다 주지(池田重二)는 이 주제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썼다. 이케다는 「식민지 문학의 이데올로기(植民文学のイデオロギー)」에서 식민지 문학이 프롤레타리안 문학의 계급의식적 세계관이나 부르주아 문학의 좁은 세계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81] 이케다의 주장에 따르면 식민지들에서 인간의식은 계급갈등이 아닌, 자연을 지배하려는 욕구로부터 형성된다. 그러므로 식민문학은 이 이데올로기로 고취되어야 한다. 그는 소작농 문학 운동들은 일본을 포함하는 다양한 나라들에서 나타났다고 언급하지만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고 믿었다. 일본어로 쓰인 식민문학은 이 사회의 특수성을 포착해야만 한다. 두 달 후 이케다는 일련의 다른 연재 기사에서 논의를 계속하였다.[82] 그 연재 기사에서 그는 식민지 사회에서 나타난 문학계의 조직을 "오로지 경제생활 일변도였던 우리 재 브라질 일본인사회가 정신생활사회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은 감동할 만하다" 고 칭찬했다.[83]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담론에 대한 몇몇의 예비적 논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논지는 정체성에 대해 관습적인 직증적(deictic)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용어들이 제시하는 정체성 확인의 근본적인 논리와 관계된다. 민족적으로 일본인인 식민지 주민들을 언급할 때 동포(同胞)와 방인(邦人)이 일본인보다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84] 지시적(Indexical) 용어들 보다 직증적 용어들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는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용을 통해 작가들이 자신들의 지시 대상을 명백히 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들 작가들은 그들과 독자들 간의 공유된 정체성을 그들의 논의의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은 당대의 국가 조직과의 연관성이 의식적으로 회피된 것으로 보아 국가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아마도 인종) 기반으로 삼았던 것 같다. 이를 고려해볼 때, 흔히 쓰이는 표현인 방문(邦文)은 어쩌면 국가 조직과 분리된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 듯하다.

81) Ikeda Jûji, "Shokumin bungaku no ideorogii," *Burajirujihô* 3 Marchand 10 March 1937.
82) Ikeda Jûji, "Bungei jihyô," *Burajirujihô* 12 May, 19 May, 26 May, and 2 June 1937.
83) *Burajiru jihô* 12 May 1937.
84)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은 일본에서의 용례와 비교되어야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최소한, 이러한 비평가들은 일본 민족국가로부터의 식민지의 자치성을 근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치성(혹은 차이)에 대한 단언은 "문화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진정성(authenticity)의 반동적인 개념"과 유사할 것이다.[85] 이는 종종 다수 문화에 대한 소수 문화의 반동을 나타내지만, 그 차이점은, 문화 민족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통과 본질에 대한 공공연한 호출이 여기에는 부재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얕은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비평가들인 불가피하게 차별성으로 귀결될 상황적 조건들을 식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통 확립의 초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비평가들은 브라질에 속해있는 자신들의 사회의 물질주의적(이라고 믿고 있는) 성향에 대한 경멸을 공유하지만, 문학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보았다. 프롤레타리안 문학 운동에 대한 공감도 일반적이지만, 그곳에서 (산업보다는) 농업이 중심을 이룬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문학이 부적절하다는 믿음 또한 팽배하다. 문인들은 그들 자신의 근성, 즉 단순히 어려운 신체적 노동을 통해 살아남는 사람들의 강건한 힘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의 가공되지 않은 직접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영혼의 발달을 위한 부름도 있지만, 식민지적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으로서의 본능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제스처 또한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에세이들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재적 토대는 식민지 사회에 대한 헌신이다. 단순히 이러한 논문들을 씀으로 인해 저자들은 식민지를 지속되는 어떤 것, 성장하고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식민지 문학을-단지 그것이 식민지 문학의 이상일 뿐일지라도-주목하고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단순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체류자에서, 정체성의 재정립의 과정을 시작한 정착민으로 변화했음을 밝혀준다. 텍스트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근대 일본 문학'으로 알려진 텍스트적 상호관계의 담론은 이러한 에세이들에서 주로 암묵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의 출판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들 작가들과 비

85) Françoise Lionnet and Shu-mei Shih, "Introduction: Thinking through the Minor, Transnationally," eds. Françoise Lionnet and Shu-mei Shih, *Minor Transnation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평가들에게 가장 큰 문학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마도 일본에서 건너온 서적일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학을, 자신들의 특수한 존재조건들에서 비롯되고 또한 자신들의 삶의 특수한 필요성에 반응하여 생겨난, 근본적으로 다른 문학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텍스트적 정체성에는 브라질 밖에 존재하는 연계성(명백한 참여가 아니라고 한다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즉, 일본 제국의 다양한 지역의 식민지 문학과의 연계성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Ⅶ. 이후의 전개

미국에 있는 일본 이주민들보다 브라질에 있는 이주민들은 훨씬 적은 차별을 겪었지만, 브라질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저항도 존재했다. 인종적 열등성에 관한 주장들에 덧붙여서, 그러한 소수민족거주지(enclave)의 "동화가능성"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다.[86] 브라질정부의 가장 보수적인 분파들은 심지어 이주가 군사적 침략의 서곡이라고 주장했다.[87] 이러한 저항은 일본이, 1937년부터 급격하게 일본인의 이민이 가속화 되었던 만주로 그 초점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88] 1938년 전후부터, 특히 브라질에서 자라나고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일본정부는 식민지에의 직접적 관여를 골칫거리로 여기기 시작했다.[89] 그 결과는 급격한 투자 회수였다. 예컨대, 바스토스 식민지의 생성과 관리의 배후에 있는 식민화 회사는 식민지의 통제를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넘기며, 거의 모든 채권을 1939년 4월까지 매각하였다.[90] 1941년 12월의 전쟁 선포와 더불어, 브라질 식민지들의 배후에 있는 반관반민 회사들은 그들의 잔여 채권들을 강압적으로 매각하게 되었다. 일본과의 공식적 연계가 박탈되고 이에 따라 그들이 유지되게 도와주었던 보조와 보호도 박탈됨에 따라, 이 소수민족거

86) Tsuchida 294.
87) Tsuchida 287.
88) 1937년 만주로 간 성인이민자(20095명으로 추정)는 1932-36년의 총 이민자수보다 많다(15,079명으로 추정). Young 395.
89) Tsuchida 264.
90) 바스토스는 적어도 그런 유의 6개 식민지 중 유일한 하나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지는 급격히 변화했다. 1938년 12월에 일본어 학교들은 폐교되었고 1941년 8월에 일본어 신문들은 불법화되었다.[91] 1942년 1월 19일에 상파울로에서는 일본어 텍스트의 분배와 공공장소에서의 일본어의 사용을 금하였다.[92]

이러한 전개와 전쟁자체의 소외감과 전쟁직후의 일본의 재건 기간 동안의 침묵은 문화 변용 과정을 급격하게 가속화시켰다.[93] 전쟁직후 일본어 신문들은 합법화되었고 이주는 1953년에 다시 재개되었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전과 같지 않았다.[94] 현재 이주의 흐름은 젊은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일자리를 위해 일본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완전히 뒤바뀌었다. 일본어 문학은 계속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고 제한적이지만 나라 안에서의 일본어 텍스트의 문학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를 능가하고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 숫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50만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죽어가는 예술의 관리인으로 보는 나이든 이민 1세대들이다.[95] 증가하는 문화변용과 이와 관련된 일본어 사용의 감소는 이들 문학의 상당한 도전임이 입증됐다.[96]

---

91) 브라질시보는 지하신문으로서 발간을 계속했다. *80-nenshi* 133.

92) *Nenpyô* 96. カチ組 · マケ組 문제를 기고한 일본어로 된 책자가 금지되었다. 일본어출판은 1946.9.18브라질신헌법에 따라 다시 허용되었다. 10월12일, 첫 번째 신문인 상파울로신문이 발행되었다. *Nenpyô* 103.

93) *80-nenshi* 138.

94) 1952-72년 사이에 50696명의 일본인이 브라질에 입국했다. 이민은 1959년에 피크를 이루었고(7041)피크 1061년 이후 급속히 감소했다. 1973년부터 이민은 보잘 것 없이 되었고 1973-93년에 걸쳐 2961명의 개인이 입국했다.
참고 ; Kinenshi Hensan Iinkai, ed., *Burajiru Nihon imins engo ijû no 5 0-nen*(SãoPaulo: Burajiru Nihon Ijû shaKyôkai, 2004) 284.

95) 일본밖에 있는 거대한 일본계인구의 본거지와 같이 브라질은 식민지로서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최다의 일본계인구가 브라질(대략 150만)과 미국(대략 120만)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국가들은 각각 제국주의본국(포르투갈과 영국)의 식민지로서 시작된 나라이다. 미국과 브라질은 자신을 다민족국가로 생각하고 있고 지리적 거대함이 특정민족의 많은 인구수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

96) 최근 일본인에 대한 연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만화의 유명세와 역이민의 결과이다. 이런 것과 다른 이민, 이주에 의한 문화변용에 대한 복잡한 과정, 이에 따르는 브라질의 국가적 동질성의 변형에 대해 알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Jeffrey Lesser, *Negotiating National Identity: Immigrants, Minorities, and the Struggle for Ethnicity in Brazil*(Durham:Duke University Press, 19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후 기간 동안, 「콜로니아문학회(コロニア文学会, Gremio Literario 'Colonia')」와 이것을 계승한 「브라질일본계문학회(ブラジル日系文学会)」는 일본어 전통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매개체였다. 「콜로니아문학회」는 1965년 10월에 브라질의 일본어 문학적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26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다. 기관지인 『콜로니아문학(コロニア文学)』을 그 다음해 5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 학회지는 1976년 10월까지 30호를 출간하였다. 『콜로니아시문학(コロニア詩文学)』이 뒤를 이었고 1980년 9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60호가 출간되었다. 지금도 브라질일본계문학회는 기관지 『브라질일본계문학(ブラジル日系文学)』을 매 해 3호씩 발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잡지는 1999년 2월에 시작되었다. 이 학술지는 매해 100레알(현재 약 $40)의 회비를 내는 협회의 회원들을 위해 출간되고 상파울로의 일본어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최근 가격은 35레알이었다) 게다가 자비로 출판되는 『국경지대(国境地帯)』을 포함한 동인지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스가누마 도요지(菅沼東洋司, 또는 이나 히로시(伊那宏)라는 필명으로 불리는)의 노력으로 생산되었다.

이제 포루트갈어를 사용하는 일본계 브라질인에게 수적으로 크게 밀리면서 일본어 독자 시장이 감소하는 브라질에서 (꼭 브라질의 문학은 아닌) 이 '소수문학'을 존속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성격짓는 것은 그들이 현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브라질 내의 감소하고 있는 독자층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일본에 있는 잠재적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들은 문학 (특히 산문)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독서 사회에서 행해진, 대단히 흥미롭지만 실패한 실험이 되었다. 명백히 이러한 문학 단체의 중심에 있는 나이든 활동가들은 그들의 전망에 대하여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살아남게 할 수 있을 지 모를 일본의 독자들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경험에서 비롯된 염세주의적인 결과일 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조건들에 대한 의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Ⅷ. 결론

앞서 말했던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조차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유에 따르면 2차세계대전 이전에 브라질에 존재했던 일본어 문학은 일본의 '공식적' 식민지와 이 공동체를 구분 짓는 분류법을 필요로 했다. 슈메이시는 반(半)식민지주의라는 단어를 다중, 다층적이고 강화되었지만 불완전하고 파편화된 중국의 식민지 구조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여기서 '반'은 절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에 존재했던 식민주의의 '파편화되고,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특성'을 나타낸다.[97] 상상컨대 이 단어는 브라질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범식민주의'(paracolonial)과 같은 어색한 단어의 다양한 변형이 사용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단어를 더 세분화한다.[98]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목표는 상동관계와 동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식적 식민주의 아래에서 만들어진 문학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시대적 인식을 뚜렷이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 단어는 브라질에서의 활동들이 공식적 식민지에서의 활동과 말 그대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어쩌면 2차세계대전 이후에 쓰인 작품들도 포함하여) 포스트식민주의와 세계체제이론을 통해 얻은 이해 없이 식민지 문학으로 보는 것은 도발적이고, 더 생산적일지도 모른다.[99]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제국 확장과 식민지 정복의 역사로 인해 야기된 위계관계, 즉 불평등한 권력 관계

97) Shu-mei Shih, *The Lure o fthe Modern: Writing Modernism in Semicolonial China, 1917-1937*(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34.

98) 나는 Stephanie Newell이 이 용어를 "'Paracolonial' Networks: Some Speculations on Local Readerships in Colonial West Africa," *Interv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3: 3(2001), 336-54에서 제안했음을 발견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뉴웰의 목적은 나와 다르다. 그녀는 범식민지로의 전이는 중심주변부모델을 버리게 하고 대신 바로 직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국의 존재의 결과로서 그 지역에서 영국인과 나란히 또는 영국인을 뛰어넘어 수세대에 걸쳐서 일어났음에 틀림없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식민주의의 효과를 인정하고 동시에 유럽중심적인 것을 벗어나고 식민이전, 식민지, 식민지이후 식민지의 문화와 역사의 결정론적 시기화에 대해서 유용하다.(350).

99) 뒤브아(W.E.B. DuBois)는 범식민지라는 용어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모르는 이 용어의 광범위한 사용을 제안하였다. 참고 Reiland Rabaka, "Deliberately Using the Word 'Colonial,'" *Jouvert* 7:2 (Winter/Spring 200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 브라질에서의 일본어 문학의 생산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더욱 유동적이고 복잡한 관계망으로 인해서 말단의 종속 관계의 생성을 지속시키는 현재 세계 체제의 부분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 경제 모델은 문학 제작의 은유와 문학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의 구체적인 묘사에 사용될 수 있다.[100]

예컨대 일본과 브라질의 경제적 비대칭이 커져가며 일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이민이 끊김으로 인해 브라질에 있는 일본어 사용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문학 작가들은, 앞에 써두었던 사회문화적 기관으로서 글쓰기를 하던 1930년의 상황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브라질에서의 일본어 문학의 미래가 밝아 보였고 비평가들이 열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던 1930년대의 상황은 전후(戰後)의 정지되었던 상황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전후에는 모든 이주가 중단되었지만, 때문에 더 강화된 방어의식을 가진 몇몇 작가들은 그들의 문학 활동의 사회적 가능성을 유지하고 영구화하려 노력했다. 정의에 따르면 모든 텍스트의 정체성은 유익한 과거를 암시했고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가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 미래는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암시했다. 문학의 생산과 소비는 흔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상상되지만 결국 문학은 사회적 활동이다. 글쓰기가 사회적 활동이 되어야 함은 독립적인 수입이 없는 작가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 최소한의 작가나 시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품들이 '근대 일본 문학'에 대한 담론에 포함된다는 것은 스피박(Spivak)의 '전략적 본질주의'와 환유법적으로 관련된 변화인데, 이는 물질적 이익을 동반한다. 이는 현지 시장에 충분한 독자가 없는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에게 다수의 독자를 획득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투자

100) Pascale Casanova는 1999년의 그녀의 책(에서 전세계적인 연구의 초기시도를 했다. *La République mondiale des lettres*는 영어로 번역되어 *The World Republic of Letter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로 출판되었다. Franco Moretti는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January-February2000):54-81에서 Alexander Beecroft가 최근 흥미로운 비평을 출판했는데 이는 이런 연구들이 유럽에서 주도적인 문화중심을 재강화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참고 "World Literature without a Hyphen," *New Left Review* 54(November-December 2008):87-100, 인용은 88페이지에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문학 작품 제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규모와 일본어 문학 독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 도시의 시장에 의존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이러한 과정을 단순히 문학이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된다는 차이점이 있는 소모품'[101] 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그러한 결합은 본문의 특수함을 지우거나 (종족문화적 동질성의 개념으로 동화시켜서) 이국화시키려는 (양면성을 지닌 '이방인 자기 페티시즘'의 적용)을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는 문학 작품을 즐기지는 않지만 그들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는 독자를 만들어낸다. 비록 이런 새로운 시장이 문학예술의 필수적 사회적 요소인 작가와 독자들을 만들어 내지만, 또한 자신의 여가활동을 위한 금전적 수입이 없는 예술가에게 있어 자주 묵살되는 필수품인 소비자를 가져다준다.

이런 물질적이고 도구적인 사고는 불가피하게 저속하고 문학의 참된 가치를 잃은 듯 보인다. 이런 방식의 전략적인 본문 분석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방식이 언제나 상품화를 수반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작품이 '순수하건 대중적이건' 간에 문학작품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작품이 국가적, 언어적, 종족문화적 또는 지역적이라면 이런 방식이 본문 정체성의 부분적이고 인위적인 본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학자가 사심 없는 관찰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준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포럼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학자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는 담론에 그 글과 작가를 끌어들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져온다. 과연 이러한 글을 범식민주의 문학인가, 식민주의 문학인가, 또는 '근대 일본 문학'이나 다른 옵션들 중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 가? 여러 개의 선택이 잠재되어 있지만 특정 문학 작품을 한 가지 성격의 틀에 넣어 규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Burns, E. Bradford, *A History of Brazil*, third edition(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101) Lionnet and Shih 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Duus, Peter, *The Abacus and the Sword :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Françoise Lionnet and Shu-mei Shih, eds., *Minor Transnationalism*(Duke University Press, 2005)

Iriye, Akira, *Pacific Estrangement : Japanese and American Expansion, 1897-1911*, (HarvardUniversityPress,1972)

Reiland Rabaka, "Deliberately Using the Word 'Colonial,'" *Jouvert*7:2(Winter/ Spring 2003)

Said, Edward, "Reflections on Exile," *Reflection son Exile and Other Essays*(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Shu-mei Shih, *The Lure of the Modern : Writing Modern is min Semi colonial China, 1917-1937*(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Smith, T. Lynn, "Studies of Colonization and Settlement,"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4:1(Spring, 1969)

Tsuchida, Nobuya, *The Japanese in Brazil, 1908-1941*(Ph.D.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Angeles, 1978)

蛯原八郎著『海外邦字新聞雑誌史』(名著普及会、1980)。

川村湊著『南洋・樺太の日本文学』(筑摩書房、1994)。

記念誌編纂委員会編『ブラジル日本移民戦後移住の50年』(ブラジル・ニッポン移住者協会戦後移住50周年記念祭実行委員会、2004)。

小森陽一著『〈ゆらぎ〉の日本文学』(日本放送出版協会、1998)。

今野敏彦、藤崎康夫 編著『移民史. 1、南米編』(新泉社、1994)。

山東功著「ブラジル日系社会における混成日本語「コロニア語」の意味」『大阪女子大学紀要』56(2005)。

サンパウロ人文科学研究所編『ブラジル日本移民・日系社会史年表』(サンパウロ人文科学研究所、1996)。

日比嘉高著「日系アメリカ移民一世の新聞と文学」『日本文学』第53巻第11号(No.617)、2004年11月。

ブラジル日本移民70年史編纂委員会編『ブラジル日本移民70年史』(ブラジル日本文化協会、1980)。

ブラジル日本移民80年史編纂委員会編『ブラジル日本移民八十年史』(ブラジル日本文化協会、1991)。

前山隆著「解説」コロニア文学会編『コロニア小説選集、第1巻』(コロニア文学会、197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